

제 5 강. 평신도 사역의 영역

(교회에서 개발 가능한 평신도 사역의 영역)

1. 제 1 영역 : 평신도 성경 교사와 설교자

한 주일에 한 두 번 듣는 설교만으로 평신도의 성숙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체로 큰 교회의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무지와 무의식적인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그들의 삶 역시 영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상적인 교회에는 다양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된다. 여기에는 개인 및 소그룹, 그리고 중 대형 그룹별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물론 말씀을 통한 나눔과 생활에서의 실천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적인 커리큘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나누는 일은 전문 목회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평신도들을 성경 교사와 설교자로 세워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교회는 평신도 교사와 설교자를 양성하기 위해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전문 목회자 주위에 있었던(왕상 19:19-21; 왕하 2:7),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과 바울의 주위에 있었던(행17:14-15, 18:1-6, 20:4-6) 선지자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2. 제 2 영역 : 가정교회 목회자와 소그룹 인도자

대다수 교회에서 전문 목회자들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평신도들만이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3년 공생애 기간 동안 엄청난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 즉 가정교회 목회자와 소그룹인도자를 양성해 놓으셨다.

이들이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의 뿌리가 되어 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성경적 전통과 정신을 이어 나갈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은 바로 소그룹이라는 작은 은혜의 공간에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소그룹을 심분 활용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정교회와 소그룹을 형성하여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셨으며, 제자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다. 여기서 배출된 제자들 역시 가정교회와 소그룹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대과업을 이뤄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가정교회와 소그룹은 이상적인 교회의 한 모델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이다. 가정교회와 소그룹을 통해 3~12명 정도의 사람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한 양육과 예배 그리고 교제의 공동체를 이룬다.

또한, 이들은 초신자들을 환영하고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며,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심방 하는 일도 담당해야 한다.

3. 제 3 영역 : 일대일 양육과 상담, 내적치유 사역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및 성도들의 자발성이나 지속성이 결여되기 쉬운 대그룹 양육에 비해 일대일 양육은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명한 양육과 훈련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대일 양육은 교회에 응집력을 높이며, 교회의 빠른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온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평신도 양육자가 필요하다.

한편 상담, 내적치유 사역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들의 삶에 방향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다. 목회상담과 내적치유는 심리 상담과는 달리 기도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담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경말씀과 성령이 그들과 목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상담자와 내적 치유자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기술과 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에서는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깊이 있는 상담활동과 내적치유 역시 평신도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평신도들 가운데는 이미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4. 제 4 영역 : 예배와 찬양 인도자

예배와 찬양인도자는 백성들 대표자나 대리 제사장이기보다는 다른 제사장들이 드리는 공동 예배와 찬양에 헌신된 중, 즉 또 다른 제사장이다. 이들은 공동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을 돕는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도 기쁘고, 회중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성령에 의한 참여와 육적인 참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와 찬양에서 충분히 배려되고 양육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예배와 찬양인도자는 예배와 찬양이 습관적인 종교의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예배 참석자들의 다양한 경배의 표현을 하나로 묶어 주어 자유로운 예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교회가 지향하는 가정교회나 소그룹의 모든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와 찬양인도자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유능한 예배와 찬양인도자의 숫자만큼 교회가 성장한다고 보아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생동감이 있는 찬양과 살아있는 예배는 교회 성장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5. 제 5 영역 : 직장 사역자

전도, 설교, 목회양육,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 장로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윗사람을 섬기고 조직과 직장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시킨다. 이러한 이원론적 의식은 사역을 직업보다 우선시하는 현상을 낳았을 뿐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원래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다(창1:26-31; 2:15). 이런 관점에서 모든 평신도들은 우선 ‘일’을 통해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직장사역자가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분야는 중보기도 모임, 성경공부 모임, 긍휼사역 모임, 직장 선교회 활동, 복음 전도 등이다.

6. 제 6 영역 : 생활 전도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다. 기독교라는 열차에는 1등칸은 목회자 전용이고 2등칸은 평신도 전용이라는 식의 객실 구분은 있을 수 없다. 신약성경에는 사역자가 아니거나 전도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서 증거 하는 두 가지 일은 교회와 성도들 전체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평신도들을 생활전도자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훈련과정을 통해 양육하며, 먼저 생활전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전문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영적 여행이 시작된다.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에 교회가 더욱 더 열심을 내야 한다.

7. 제 7 영역 : 결혼 및 가정 사역자

‘교회는 큰 가정이며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다.’

결혼 및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말이다. 결혼과 가정 사역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결혼사역의 분야는 미혼남녀의 결혼준비, 혼전 성관계와 관련된 성교육, 그리스도인다운 데이트 방법, 부부관계의 조정 및 화해 등이다. 가정사역의 분야는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 부부역할훈련, 부모역할 훈련, 성숙한 결혼생활, 부부성경공부, 가족체계 훈련, 부부, 부모-자녀대화법 등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결혼예비학교」, 「대화학교」, 「부모역할 훈련학교」, 「부부역할 훈련학교」 등이다.

가정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에 있다.

8. 제 8 영역 : 사회개혁 사역자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선교의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예수님께서서는 전 인격을 위해 온 천하에 복음을 가져 오셨다(눅 4:18-20). 예수님의 사역에는 새로운 왕국의 생활방식을 보여 주고(요 13:15; 17:21), 복음을 선포하며(마 28:20; 막 16:15),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사단에게 묶인 자를 풀어 주고(마 9:35; 10:1), 중재하고 연합시키며(막 3:13-19), 희생적으로 섬기고(마 20:28; 눅 22:27),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주는 최후의 비폭력적 행동으로 권세에 도전하는 것(골 2:15) 등이 포함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계속 그분의 선교를 수행하는 도구이다. 우리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그의 부름과 가르침대로 살면서 사회를 개혁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 사회개혁 사역자로 모든 성도들을 세워야 한다.

9. 제 9 영역 : 특기 및 문화 사역자

교회 내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평신도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음악, 미술, 문학, 무용, 체육 등의 분야는 물론 연기와 연출, 편집과 디자인, 설계 등의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 모두는 특기 사역자 혹은 문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이 중심이 된 교회 사역팀들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세상문화를 오히려 선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이들을 통해 전도 역시 그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기와 문화사역의 영역은 영화와 텔레비전, 신문과 잡지와 도서출판, 악기와 성악을 통한 연주활동과 연극과 무용을 통한 공연활동, 건축, 스포츠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활동 등 그 분야가 엄청나게 넓다.

문화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은 성숙한 크리스천의 문화를 창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교회공간 및 시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10. 제 10 영역 : 공휴 사역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바로 「낮은 자를 섬기는 사역」, 즉 공휴사역일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공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공휴 사역자가 세워져야 할 영역은 무척 다양하다.

장애우 사역, 결식아동을 위한 사역, 노인을 위한 사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역, 고아원과 양로원을 위한 사역, 실직자를 위한 사역, 어린이 가정을 위한 사역 등이 있다.

11. 제 11 영역 : 전문직 사역자

전문직 사역이란 평신도 사역의 꽃이다.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은 교회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며 복음전도의 강력한 수단이 된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그들의 믿음과 함께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전문직 사역자들은 자기들의 전문직의 영역에 따라 사역팀을 구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다.

신앙이 돈독한 과학자와 역사학자들의 모임인 창조과학회나 창조사학회, 의사들의 모임인 의료선교팀 등이 좋은 예가 된다.

전문직 사역의 범위는 컴퓨터, 농업, 자동차, 기계설비, 설계 등 그 범위가 무척 넓으며 해가 더할수록 그 영역은 더욱 세분화되고 첨단화될 전망이다.

12. 제 12 영역 : 선교사 사역자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선교사로 임명받은 사역자도 있지만 자기의 생업을 통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사 사역도 있다. 이들은 장, 단기간 해외에 머물면서 현지교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선교활동을 한다. 그들의 생업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된다.

외교와 관련된 직종이나 각 기업체의 해외파견, 유치원 교사, 의사와 한의사, 침술사, 미용, 이용사, 개인사업 등 어느 분야의 평신도든지 선교사 사역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교회에서는 이들을 위한 「평신도 선교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들의 준비를 도와야 한다.

13. 제 13 영역 : 어린이 사역자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거나 어린이를 좋아하는 평신도는 어린이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다. 교회학교 교사, 어린이 캠프 전문가, 어린이 상담원, Good News Club의 교사, 어린이 관련 문서 사역자, 특별활동 교사, 장애아 사역 등이 활동영역이다.

어린이 사역자 역시 그들의 은사대로 사역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들을 위한 훈련과정에는 예배인도자학교, 커뮤니케이터학교, 리더십학교, 소그룹인도자학교, 프로그래머학교, 어린이 전도자 훈련학교, 행정훈련학교 등이 있다.

14. 제 14 영역 : 청소년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는 세속문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시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게 하고 보다 큰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일에 관심이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영적 생활에 힘을 북돋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들과 만남을 맺는다. 청소년 사역의 영역은 교회학교 교사, 청소년 문화선교 단체의 멤버, 청소년 상담, 예배와 찬양인도, 소그룹인도 등이 있다.

15. 제 15 영역 : 대학 청년 사역자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리더십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대학청년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은 한국교회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

대학청년 사역자는 내적치유, 문화선교, 문서출판, 영상홍보, 의료선교, 직장선교 농어촌선교, 찬양선교, 컴퓨터선교, 금홀사역, 예배지원 등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들의 영역이 된다. 따라서 세상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역을 전개할 수 있다.

16. 제 16 영역 : 컴퓨터와 인터넷 사역자

컴퓨터와 인터넷 사역은 크게 청소년 선교와 해외 선교, 그리고 목회지원으로 구분된다. 컴퓨터와 인터넷 세대로 특징 지워지는 청소년들에게 이들 프로그램은 가장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된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회생활과 복음과 선교와 기독교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이들 사역의 핵심이 된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창의적 접근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강력하고 확실한 매체가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이다. 인터넷상에 선교지 언어로 준비된 성경과 찬송가를 띄우고, 제자양육과 지도자 과정의 전자 선교 도서관을 개설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다. 교회전산실을 통해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과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목회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터넷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이들 영역의 사역자들이다.

17. 제 17 영역 : 공동체 사역자

교회는 평신도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평신도는 셀(cell)의 형태로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 교회공동체는 10~12명의 성도가 모여 1개의 순이 되고, 10~12개의 순이 모여 다락방이 되며, 4~5개의 다락방이 모여 지역공동체가, 3~4개의 지역공동체가 모여 연합공동체가, 그리고 몇 개의 연합공동체로 구성되어진다. 각 공동체 안에는 당회가 있으며 지역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사역이 이뤄지고 있어 여기에도 지역교회만큼이나 헌신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공동체 사역자는 교회 사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그들의 영역이 된다.

18. 제 18 영역 : 중보기도 사역자

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치유가 실현되도록 2-3명이 팀이 되어 기도한다. 이 사역은 모이는 시간 대부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며,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사역이다.

19. 제 19 영역 : 행정 사역자

조직과 운영관리에 은사가 있는 평신도들은 행정 사역자로 세움 받을 수 있다. 교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회 관리의 터전을 닦는 일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핵심이

다. 교회에 필요한 가장 작은 문서의 양식에서부터 교회 구성원의 조직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사역은 광범위하다.

20. 제 20 영역 : 문서 사역자

세속적인 문화의 시각을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고로 변혁시키며, 주보와 잡지와 신문 등의 문서를 통해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또한 교회도서관을 통해 책과 음성, 영상자료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돕는 사역도 한다. 어문학, 교육학, 신문방송학, 문헌정보학, 출판, 디자인학 전공자는 모두 문서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다.

21. 제 21 영역 : 비서 사역자

목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담임목사의 역할과 기능도 그 만큼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 특히 평신도와 전문목회자의 팀사역이 이루어지면서 담임목사가 한 번이라도 돌아보아야 할 사역의 장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의 효율을 높이며 일관성 있는 목회론의 적용을 위해 전문적으로 담임목사를 도와주어야 할 사역이 필요하다. 바로 비서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다.

비서 사역자는 특별히 많은 사람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며 담임목사의 목회 일정을 잘 조절하고 다양한 사역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 제 22 영역 : 러빙 핸드 사역자.

교회를 지탱하는 원천적인 힘은 자원봉사이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행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원리이다. 따라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자원봉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온누리교회의 경우, 1만 사역자로 임명받은 사람이나 174개 팀의 팀장과 주요 일꾼들이 모두 자원봉사자이다. 교회 사무국이나 온누리 선교재단 사무국의 국장도 자원봉사자이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을 러빙 핸드라 하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교회는 자원봉사자를 길러 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도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통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다.